

조그마한 쥐가 정글에서 땅에 발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를 땅에다 댔습니다. 쥐는 자신이 발을 세게 구른 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렸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야." 하고 쥐가 소리쳤습니다. "코끼리가 그 말을 듣게 하지 마렴." 이라고 쥐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힘이 세. 네가 자랑하는 걸 듣기 싫어 할 거야."

"코끼리가 어디 있는데요?" 하고 쥐가 물었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찾아서 누가 제일 센지 보여줄게요. 내가 코끼리를 갈기갈기 찢어 버릴거야." 그리고 나서 쥐는 코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작은 쥐는 걸어가다가 도마뱀을 만났습니다. "네가 코끼리야?" 하고 작은 쥐가 물었습니다. "아니, 난 도마뱀이야." "운 좋은데." 하고 쥐가 말했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찾으면 갈기갈기 찢어 버릴 거야."

도마뱀은 허풍 떠는 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발을 땅에 굴렀습니다. 쥐가 발을 구를 때, 공중에서 천둥이 쿵!하고 쳤습니다. 도마뱀은 그 소리에 겁을 먹어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도마뱀한테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줬어!"라고 쥐는 생각했습니다. 쥐는 코끼리를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개에게 가서는, "네가 코끼리니?"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개야." 하고 개가 짖었습니다. "운이 좋네."하고 쥐가 말했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찾으면 갈기갈기 찢어 버릴거야." 개는 허풍 떠는 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땅에다 발을 굴렀습니다. 발을 굴렀을 때, 개의 주인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개는 몸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뛰어 가버렸습니다. "내가 개한테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줬어."하고 쥐는 생각했습니다. 쥐는 다시 코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쥐는 강에 도착 할 때까지 걸었습니다. 아주 큰 회색의 동물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산처럼 컷습니다. 그 동물의 다리는 나무만큼 컷습니다. 그 동물은 귀가 컷고 코가 길었습니다. 코끼리가 몸을 숙이고 강에서 물을 가져 왔을 때 쥐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쥐는 땅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슝처럼 보였습니다.

"안녕." 쥐가 말했습니다. "네가 코끼리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동물이야. 만약 네가 코끼리라면,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 버릴거야." 코끼리는 이 우스운 동물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가 웃을 때, 물이 코끼리의 코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갑자기 나온 물은 작은 쥐를 넘어뜨렸습니다. 쥐는 길에서 이리저리 굴렀고, 그 물 안에서 거의 익사 할 뻔 했습니다.

쥐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 즈음, 코끼리는 가고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물 웅덩이에서 흠뻑 젖고 있던 바보같은 쥐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쥐는 "코끼리가 내가 얼마나 센지 알았을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코끼리는 폭풍우가 치는 동안에 도망간거야. 코끼리는 내가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는 걸 알았겠지."

쥐는 삼촌에게 코끼리가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이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고, 그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다른 동물들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사람들까지도 작은 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만이 알겠지요. 사실은, 코끼리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아직도 웃으면서 코에서 물을 뿜어 낸답니다.